

韓國服飾語와 蒙古服飾語의 比較 研究

金 鎮 玖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A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n and Mongolic Costume Terminologies

Jin Goo Kim

!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 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4. 脛 衣
I. 序 言	5. 신 발 類
II. 服 飾 語	6. 織 物
1. 冠 帽 類	7. 韓 國 과 蒙 古 服 飾 語 에 나 타 나 는 漢 語 의 影 響
2. 衣 服 類	III. 結 論 및 要 約
3. 首 飾	參 考 文 獻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comparative linguistic analysis of the Korean and Mongolic costume terminologi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revealed that there were relationships between some of the Korean and Mongolic costume terminologies

It was also found that some of the Korean costume terminologies were orinated from the Mongolic costume terminologies. At the same time some of the Korean costume terminologies were influenced by the Monogolic costume terminologies.

It also appeared that some of the Korean and Mongolic costume terminologies were greatly influenced by the Chinese costume terminologies.

I. 序 言

우리나라가 몽고족과 交涉을 하기 始作한 것은 13世紀初 高麗 高宗時代 頃이다. 高麗는 高宗 46년(1259)에 드디어 몽고族이 세운 元에 항복하여 恭愍王代에 이르기까지 約 80年間에 걸쳐 一時 元의 勢力下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因하여 高麗와 元나라는 王室間의 婚姻關係를 맺게 되었고 兩國 相互間의 交涉은 人的交流와 文物交流가 活潑하게 이루어졌다.

高麗는 元의 文化를 받아 들이고 蒙古風을 좇아 風俗, 言語, 服飾 등에 많은 影響을 받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우리 言語와 風俗, 服飾에도 蒙古의인 要素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그 가운데서도 他民族과의 交涉에서 온 影響은 服飾史 研究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와 단서를 제공하여 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와 地理的, 人種的, 政治的, 歷史的, 風俗的, 言語的으로 깊은 關係가 있는 蒙古 文化 要素 중에서 言語的인 要素, 그 중에서도 服飾言語와의 關係를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蒙古 服飾 言語와 韓國服飾 言語를 比較하여 봄으로써 다른 文化 要素에서와 같이 服飾言語에서도 相互 깊은 關係가 있을 것이란 前提하에서 本論文을 展開하고자 한다.

II. 服 飾 語

1. 冠帽類

1) 고 갈

고갈의 古語는 곳갈이인데 이것은 곳갈, 깨갈, 꼬갈, 꼭갈, 꽃갈, 공갈, 피갈 등의 方言이 있다. 몽고어의 kekel, kükül, khukhul, kukul 등의 音이 고갈과 비슷하다. 이 말은 辮髮을 의미한다.

2) 마흐래

冠을 뜻하는 李朝語 마흐래(마흐리)란 말은 몽고語 마흐래와 同音同意語이고 만주어와도 同音同意語이다. 現代 몽고語도 帽子를 'mahalai', 'malahrae', 'malak'이라 한다.

李朝語 마흐래는 몽고어, 만주어中 어느 말에서 由來되었는지 確證할 수 없다. 마흐래란 말은 우리나라 方言에 여러 形態로 나타난다. 이 말과 關係 있는 것을 보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漢 語	李朝語	蒙古語	滿洲語
冠(몽유)	冠(몽유) 마흐래(몽유上55, 同文解上) 마흐리(한청문)	마라가, 마흐래(몽유) malka (Hansen) malahrae (Hansen)	마하리 마흐리

韓國方言

- 暖帽 ~ 마우래(함남)
 마우래기(함북)
 망래기(강원)
 마래기(경기, 강원, 황해)
 고깔 ~ 마래기(경북)
 마우래(함남북)
 마우래기(평북)
 망래기(강원)
 마래기(경기)

3) 簇頭里

우리나라의 簇頭里는 蒙古語 姑姑里라는 말의 訛傳이라고 알려져 왔다(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婦女首飾辯證說).

그러나 簇頭里는 그 形態도 姑姑冠과는 다르고 품도 姑姑 또는 姑姑里와는 近似하지 않다. '족두리'의 語源은 몽고 라마僧의 skull cap인 'djokder'에 있음이 分明하다(Hansen, 1950, 156).

2. 衣服類

1) 더그레

漢語	李朝語	蒙古語	滿洲語
齊肩短褂 短皮	갓동옷 갓동옷	더거레(몽유補)	더허러(한청 4-1) 더허러(同文 55)

몽고어의 더거레는 곧 李氏朝鮮 時代의 갓동옷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中國의 搭胡를 朝鮮에서는 더그레로 번역하였다(搭胡, 老下 45, 搭護 朴上 25, 27, 譯上 44).

더그레란 말은 몽고어 더거레에서 由來된 것이 證明되는데 더그레란 衣服名은 李朝鮮 時代에 王에서 부터 下隷에 이르기까지 또한 婦女도 使用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돛지와 돌찌

漢語	李朝語	蒙古語
襖子	돛지(갑옷, 마고자 등실) (朴解上, 25, 돛지탈릭) 돌찌(몽유, 同文)	돛치[鈕子(紐子), 단초] 참차

위의 例에서 볼 때 朝鮮에서는 몽고語의 단추를 뜻하는 말을 원래 뜻 외에 전혀 다른 뜻인 衣服名으로 使用한 것을 알 수 있는데 現在 方言에도 두 가지 뜻이 使用되고 있다.

- 옷설이란 뜻으로는
 돕지(충북, 전남북, 강원)
 돕자(전남)
- 저고리(襖子)란 뜻으로는
 돕지(경북)
 돕찌(경남)

3) 답 호

搭護는 表裏를 갖춘 긴 皮衣를 俗稱하는 것으로 元衣名이다. 或半袖, 半臂衫 또는 短袂衣을 이룰 때도 있다. 卽 半臂라고 불려지는 衣服을 明代에 俗名으로 搭護라고 했다(三才圖會). 搭護는 答忽이라고도 쓴다.

漢語	李朝語	蒙古語	滿洲語
皮袖(몽유)	둔즈(몽유)	다후(몽유)	
皮袖(同文)	둔즈(同文)		다후(同文)
皮端早	단즈		다후(한칭)

위에서 볼 때 元來 몽고 衣名인 다후라는 말을 漢語로 搭胡, 搭護, 搭襖·答忽 등으로 썼으며 現代도 몽고인이 입는 털 코트는 우리나라에서도 그것들을 그대로 썼던 것이 證明된다. 現代 몽고어 daha, doha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소위 搭護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둔즈란 袖子이다. 이 袖子란 말도 端罩라는 말과 同一音으로 해석된다.

4) 벌도(Poldo)

咸北 咸南 地方에서의 方言으로 外套를 벌도라고 한다. 現代 몽고語로 coat를 'polta'한다(筆者가 1990년 8월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英文學 전공의 모스크바 대학생에게서 확인하였음.). 러시아語와 터키語로는 'palto'이며 中世英語로는 'paltoh'(over coat)이며 佛語로는 'paletot'이다.

벌도라는 말은 咸北과 咸南의 端川以北 地方에서만 使用되는 方言임을 볼 때 러시아語의 영향이거나 몽고어, 터키어의 영향일 것이다.

5) 甫老와 寶里

치마 裳을 뜻하는 甫老라는 우리말의 연원에 대하여 故 김동욱 教授는 몽고어 寶里가 瓦전 된 것이라고 推定하였고(1963, p.18) 그후 복식학계에서는 그의 推論을 따르고 있다.

강길운 교수는 トラビ디어 pollar(洋服)에서 甫老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하였다(1990, p. 304).

몽고어 寶里는 加襴袍이다. 복식과 관계 있는 보로 또는 이와 유사한 말은 몇가지가 있다. 만주어에서는 凉帽를 보로라고 하며 티벳의 毛織物名에도 'puio', 'p'rouh'(Hansen, 1950, p. 91) 말이 있고 또한 영어에 'pola'(coat, shirt)라는 의복명도 있다.

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이렇게 여러나라말 중에서 치마의 의미를 가진 말은 없다. 그리고 寶里와 pollar가 甫老와 비슷한 音이라고 그 말에서 甫老가 유래했다고 推定할때는 音과 義

味가 가능할런지 모른다. 筆者는 오히려 우리의 甫老(치마 裳)라는 말은 태평양 군도의 原住民이 스커트 또는 腰衣로 使用하는 'pareu' 또는 'pareo'에서 무늬가 있는 綿布에서 유래된 말임에 틀림없다. 'Pareu', 'pareo'는 우리말의 a → o의 음운변화가 일어나면 甫老와 同音이 되고 치마라는 意味도 같고 우리말에는 古代로부터 南方語의 영향이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寶里라는 몽고어도 다른 나라의 借用語이기 때문이다. 寶里 'burijesu' → 'bürije'(外套) 襪衫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데(白鳥庫吉) 그는 이 말이 어디에서 온 말인지 어떤 옷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몽고의 'burijesu', 'bürije' 寶里는 11세기부터 13세기末 내지 14세기 초까지 입혔던 bliaud 혹은 bliaut의 音寫임에 틀림없다. Bliaud는 'blialt'(cloth)라는 독일어에서 온 말인데 中世에 男女가 입었던 overtunic으로서 옷길이는 길고 벨트가 있으며 貴族은 보통 옷단과 목둘레를 장식한 발목까지 닿는 bliaud를 입었는데 말을 타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치마 옆은 트인 옷이었다.

Bliaud는 卽 加襴袍인 寶里와 音, 意味가 同一한 衣服인 것이다.

다님, 대님(足紐)은 Drav. 'täram'(끈) 관계가 있다. 제주방언으로 다님을 다림(tarim)이라 하며 다르매(합남), 다리매(합남), 다리매이(합남), 다리미, 대리미(강원), 대림(경북)라는 방언도 있다.

6) 비가, 비게, 비가옷(比甲)

比甲은 元昭容皇后가 만들었다고 하는 곳이다. 이것은 清代까지 使用되었다.

比甲은 소매와 領襟이 없으며 뒤가 앞보다 더 길고 앞 양쪽에서 끈으로 매는 一種의 背子인데 말탈 때에 편리한 衣服이어서 元代에 모두 이것을 모방하여 입었다.

비가, 비게는 比甲의 寫音이다. 비가옷은 비가+옷임을 알 수 있다.

7) 衫子

몽고語 가운데는 相當히 많은 漢語가 使用되는 것을 發見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服飾言語에도 적용된다. 몇가지 例를 들면 몽고語 衫子는 漢語 襖子를 몽고語로 '참차'라고 하는데 이는 衫子の 표음임이 分明하다. 現代語 'chemche'라고 한다.

笏을 '후반'이라 하는데 이것도 漢語 笏板을 표음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單的(옷)을 '당'이라고 이르는 것도 單的 寫音임에 틀림없다.

8) 옷과 우티

옷은 衣服의 通稱인데 漢語 襖, 襖子로 쓴다. 몽고어에는 'ochie', 'uudji', 'uuzh', 'uush' 등의 衣服名이 옷의 音에 해당된다. 몽고語의 'uudji' 혹은 'ochie'는 婦人의 소매없는 over-cas-tan 또는 vest에 해당되는 것인데 소매가 있고 옷길이가 짧은 對襟褂를 말하기도 한다. 襖子는 本來 北齊의 婦人옷이었으니 襖子라는 漢語를 몽고어로 uudji, ochie라고 寫音한 것이라기 보다는 胡服의 衣名인 ochie, uudji를 漢語로 寫音한 것일 것이다. 日本語로 오子를 おうし, おうし라고 발음하는데 이것도 韓國語의 '옷' 몽고어의 ochie와 모두 같은 衣名을 부른 것임에 틀림없다.

9) 저고리

저고리는 저구리, 저고리, 적구리, 赤又里, 赤古里, 小古衣라는 古語 外에 조고리, 조구리, 주구리, 지고리 등의 方言도 있다. 저고리의 音은 外來語의 표음이 分明한데 몽고어의 'sekelig'(under-caftan)과 音이 비슷하다.

10) 두루마기

漢語	李朝語	蒙古語	滿洲語
褂子	쿠리매(몽유上·同文上)	쿨머	쿠루머

한국方言

- 쿠루매기(자성, 강계, 함남북, 평남북, 광범위하게 사용됨)
- 쿠루매(후창, 회천, 영변, 박천)
- 쿠리매(龜城)
- 후루매(충남, 경기, 강원)
- 후루마기(제주)
- 후루막(경북, 충남북, 전남북)
- 후루매기(경북, 충남북, 전남북, 강원)
- 후르매기(충북)
- 후리매(제주)

北方地域에서는 K음이 살아 있고 南方地域에서는 (ㄱ) → (ㅎ)음으로 변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IE이나 또는 다른 言語에서와 같이 우리 한글의 (ㄱ)과 (ㅎ)도 相互交換的으로 使用되는 例가 많다. 여기의 袂子는 卽 우리가 말하는 두루마기에 해당된다.

漢語	李朝語	蒙古語
帖裏 팅리	터리, 털리, 털릭 철릭, 침리, 天益 天翼	terlig, terlik, törlök

철릭은 帖裏의 俗音이다. 털릭, 철릭은 몽고의 terlig, terlik와 같이 g, k음이 뒤에 있어 몽고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裏의 古音에는 'lak'도 있으므로 꼭 그렇게 단정할 것도 아니다. 텅리, 털리, 털릭, terlig 혹은 terlik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漢語, 朝鮮語, 몽고語에서 共通으로 거의 같은 音으로 나타나는 말이다.

3. 首飾

1) 汝火와 羅兀

汝火와 羅兀이란 말은 國婚定例, 尙方定例, 嘉禮都監 儀軌 등에 婦女 服飾名으로 나타나는데 너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너불(汝火), 나울(羅)은 너울의 사음이라 생각되는데 歷代 嘉禮都監 儀軌에서 보면 너불(汝火)은 仁祖代(1627)에서부터 英祖 20年(1744)의 嘉禮都監 儀軌에 나타나고 以後 國婚定例(1749)와 尙方定例(1751), 英祖貞純后的 嘉禮都監 儀軌(1759)로부터 國末 純宗純祖妃 嘉禮都監 儀軌(1906)까지는 羅兀로 대치된 것을 보게 된다. 汝火이 羅兀로 바뀐 것이다.

소위 汝火, 羅兀이 面紗와 同一物이라고 보는 見解가 있는데 同一物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것은 朝鮮朝代 嘉禮都監 儀軌에 面紗는 英祖 20年(1744)의 莊祖獻敬后的 嘉禮都監 儀軌에만 빠져 있을 뿐이며 또한 汝火, 羅兀과 함께 記錄되어 있다는 事實이다.

또한 家禮諺解 二15에 擁蔽其面은 너울이며 면사^マ튼^一이라고 있다. 卽 너울은 面紗 같은 것이지 面紗는 아니라는 것이다.

너울이라고 하는 말은 몽고어의 面紗를 뜻하는 ‘김러굴’이라는 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Khib)’은 몽고어, 우리말 모두 비단을 일컬으므로 김러굴은 김+러굴이 아닐까 생각된다.

2) 당 기(唐只)

당기는 당기, 당계라고도 하는데 당기는 몽고語 ‘dungee’(garters)와 거의 같은 품이다.

3) 도투락, 都多益

‘도톨’은 蒙古 既婚女の 頭飾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도톨’은 回鶻 特有的의 假髮.

우리나라의 도투락(都多益) 당기는 蒙古 既婚女の 頭飾으로 使用되는 ‘도톨’이라고 한다(崔南善, 故事通). ‘도톨’이라는 말은 回鶻 獨特的의 假髮 ‘도톨’(杉本正年, 1984, p.224)과 같은 말임을 알 수 있다.

3) 비 너

빈허라는 말은 簪, 笄의 古語이다.

「史記, 匈奴傳」에 繡袷長襦 錦袍各 比余一, 黃金飭具帶一이라 있고 「漢書匈奴傳」은 比余를 比疎로 記錄하였다. 比疎를 師古는 「注」에 辮髮之飾也, 以金爲之, 比音類寐反, 疎字或作余라 하였다. 漢語의 古音으로 比余는 ‘bin yo’, 로 發音되는데 한가지는 毳 郎櫛髮器라 解析하였고 또는 辮髮之飾이라고도 解析하였다. 蒙古 公主의 머리 裝飾이라고도 解析하였는데 우리의 빈허, 비너라는 말은 辮髮之飾의 뜻에 적합한 比余의 古音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4. 脛 衣

1) 斜 幅

우리나라에서 斜幅이라고 하는 말은 바지의 斜幅을 意味하는데 使用된다.

漢語로 斜幅(偏)은 行縵, 行纏의 뜻이 있는데 몽고語의 leggings를 意味하는 ‘süibei’라는 말은 漢語의 斜幅(偏)의 寫音인 것임이 확실하다.

5. 신발류

1) 구 두

漢語	李朝語	蒙古語	日語
靴子	휘	구들	구쓰

한국방언

구주(황해, 평남, 함남북)

구두라는 말은 ‘구들’(gutul), ‘구탈’(guta) 또는 guda이라는 몽고어에서 유래한 것이 分明하다. 몽고古語로 boots 또는 ‘gudusun’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우리말 고무신, 짚신, 나막신 등과 같이 ‘gudu’+‘sun(sin)’의 複合語일 것이다.

몽고어 ‘구들’은 古語이고 본 연구자가 1990년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모스크바 대학 영문학 전공 학생에게서 수집한 자료에 依하면 現代語로 boots를 구탈(guta)이라고 하였다. 구탈(guda)이라고도 발음된다. 몽고어는 구들 → (구탈, 구달)로 gutul의 tu에서 u → a로 변하였다.

2) 신(鞋)

오늘날 ‘신’이란 한국어는 特定한 한가지 신의 명칭이 아니고 履物의 총칭이다. 그러나 新羅語로는 靴를 ‘洗’이라고 일렀으며(南史, 梁書 諸夷 新羅), 李氏朝鮮 時代에는 ‘신’이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鞋, 屨 등을 意味했고 ‘靴’는 ‘휘’라고 따로 불렀던 것으로 나타난다.

몽고어로 雪靴를 ‘sin’이라고 한다.

6. 織物

1) 김

‘김’은 絹, 繪, 縑, 綺 등을 포함한 비단의 총칭으로 우리나라에서 使用되는 말이다. 蒙古語로도 비단을 ‘khib’이라 한다. 蒙古語 ‘khib’은 多彩色 비단을 일컫는다. 한국어 ‘김’과 몽고어 ‘khib’은 그 語源이 같은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감(資料)

漢語	李朝語	蒙古語
身料	ㅁ암	김

李朝鮮의 가암 즉 資料를 뜻하는 가음 옷감이라고 할 때의 감은 縑(몽)과 유사하다.

7. 韓國과 蒙古服飾語에 나타나는 漢語의 影響

韓國과 蒙古는 中國과의 密接한 歷史的, 文化的 關係를 가져 왔으므로 韓蒙 兩國은 服飾 言語에도 漢語의 影響을 많이 받았음이 發見되는데 그 몇가지를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1) 補子

漢語 補子는 李朝語로는 흉배 또는 漢字 그대로 補子라고 불렀고 蒙古語로는 漢語의 唄대로

‘푸스’라고 불렀다.

2) 其 他

‘다후’도 漢語 搭胡(護)와 같은 흡인데 원래 ‘다후’는 元 衣名이므로 漢語가 蒙古語 ‘다후’를 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漢語와 같다. 漢語 粉子도 몽고어로 ‘푼즈’라고 한다.

釵子도 蒙古語로 ‘채스’라고 한다. 漢語 粧段을 李朝語로는 그대로 粧段, 몽고어는 ‘종돈’, 紬子를 李朝語로는 비단, 몽고어로 ‘츄스’로 漢音 그대로, 蟒龍假을 李朝語로는 漢字 그대로 쓰고 蒙古語로는 ‘망늑’이라 부른다. 綾子를 李朝語는 (即 綾字) 蒙古語로는 漢音 그대로 ‘링스’, 紡紬를 李朝語로는 방스쥬(紡絲紬) 蒙古語로는 ‘광스’라고 하여 紡絲를 그대로 사음하였고 絹子를 李朝語로는 김, 蒙古語로는 漢音 그대로 ‘관스’라고 한다. 몇가지 같은 예들을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漢 語	李朝語	蒙古語
羅	羅	로
紗	紗	샤
綿紬	면쥬	미천
釣墩		조돈(釣墩)(現몽고어)
搭連	대련	다링
網子	망건	왕스
彭緞	彭緞	펑단
閃緞	閃緞	타지(即搭子)
搭子	搭子	타지
幘頭	幘頭	‘Bogto’(現代語. 기혼녀의 帽子)

Ⅲ. 結論 및 要約

우리나라와 蒙古는 地理的, 人種的, 歷史的으로 相互 깊은 관계를 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렀으므로 다른 文化要素에서와 같이 우리의 風俗, 言語, 服飾에도 蒙古文化 要素가 發見된다.

本 論文에서는 言語要素中에서 兩國의 服飾言語를 比較하여 봄으로써 服飾言語의 相互관련성과 몽고 복식언어 要素가 우리나라의 服飾言語에서 發見되는지 찾아보려고 하였다.

本論에서 얻은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服飾言語中에는 蒙古 服飾言語의인 要素를 發見할 수 있었다.

服飾言語는 衣服名 뿐만 아니라 衣服부속품과 衣服材料名에도 蒙古語의 影響이 發見되었다.

우리나라의 古代服飾言語 가운데도 蒙古語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發見되었으며 李朝 服飾語는 물론 現代語와 方言에도 蒙古語의 要素가 發見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服飾言語와 蒙古 服飾言語가 同音 또는 類似音을 가진다고 하여 蒙古語의 影響을 받았다고 간단히 結論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同一語나 類似語가 韓蒙 兩國의 服飾言語에 發見되지만 그 根源은 오히려 韓蒙 兩國 言語에 있지 않고 다른 言語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韓蒙 兩國의 服飾言語中에는 漢語에 그 根源이 있는 것이 많이 發見되었다. 이는 蒙古와 韓國은 政治的, 歷史的으로 유구한 歲月 동안 中國과 밀접한 關係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解析된다.

參考文獻

1. 가례도감 의궤(장석각본)
2. 강길운. 고대사의 비교언어학적 연구. 서울:새문사. 1990.
3. 강길운. “길약어와 한국어의 비교연구(Ⅱ)” 수원대 논문집. pp.75-100. 1984.
4. 김동욱. 이조전기복식연구. 한국연구원. 1963.
5. 노결태언해
6. 동언고략
7. 몽어유해
8. 몽어유해보
9. 박통사언해
10. 방학근. 한국방언 사전. 현문사. 1978.
11. 사성통해
12. 성호사설
13. 신기철, 신용철. 국어대사전
14. 약학제법
15. 왜어유해
16. 청장관전서
17. 훈몽자회
18. 杉本正年. 東洋服裝史 論攷. 昭和 59年. 東京:文化出版局. 昭和 59年
19. 小倉進平. 朝鮮語 方言の研究 上.下. 岩波書店. 昭和 19年.
20. Hansen, H.Harald. *Mongol Costumes*. København. 1950.